

<p><b>밀알교회</b>  우 641-251  경남 창원시 명서2동 115-3  ☎(055)238-8822  담임목사 황권철</p>	<p><b>밀알강단</b>  (홍주소:사명자)  <a href="http://www.mealall.or.kr">http://www.mealall.or.kr</a></p>	<p><b>밀알강령</b>  † 밀알이 되라  † 증인이 되라  † 사명자 되라</p>
<p>설립: 950928, 주제: 신적현현, 밀알: 제0542호</p>		

##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라

(신적현현 ②)

본문/ 시18:7-15

일시/ 2005. 5. 22.주일낮

어떤 분이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 10시간 후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삶의 대 혼란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평소 하던 그대로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는 50년의 생애를 살면서 42000번의 설교를 했으며,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40만 키로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언제나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를 따랐던 우리들이 만든 공동체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Methodist)란 말이 규율, 질서란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엄한 규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규례와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실로 위대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시상이 떠올랐을까? 그러한 것이 공허한 공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와 같은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공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 진동의 역사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임함이라도,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쏘이 피었도다”(7-8)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지축을 때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동의 역사로

흔들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악인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진동의 역사로 지축을 흔들며 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질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지진이요 화산 폭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 지질학적인 구조로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산의 터가 요동함이 그의 진노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산이 흔들립니다. 여기 산은 단순한 산(mountain = the foundations of the mountains shook)이 아닙니다. 일종에 산맥인데 이를 사람의 인체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사람의 척추 뼈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척추가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문화가 덜 발달되었던 농경시대 사람들은 산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산이 유일한 사람의 보호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치더라도 산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룯이 요단들이 보이는 소돔들판에 있다가 재앙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들 문화는 후일에 인간의 기술로 창조된 도시 문화입니다. 곧 아파트 문화입니다. 필요 이상이 모여 흠어지기를 거부한 도심문화는 최악의 온상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촌락 중심의 시골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를 보고 큰 인물이 난다고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세를 받으려면 시온 산을 통한 언약의 말씀과 보혈의 정기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쳐도 산에 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취락구조가 다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을 흔들며 버린다고 하니 사람이 의지할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동네에서 점쟁이 여중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 그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인들이 산이라고 하는 옥 터를 흔들며 옥문을 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해하는 사울을 흔드니 그 집안이 풍지 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 분출의 역사

하나님이 흔들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이 지축을 잡고 조금만 흔들어도 이 세상에는 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흔들신 이후에 거침없이 분노를 내어 품으시면 대 재앙이 발생해 버립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쏘이 피었도다”(8)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 뱉으시고 앞으시면 한 제국도 일시에 허물어집니다. 언약의 성지를 버리고 세속의 부를 좇아 간 룯을 봅시다. 그는 소돔에 가서 한동안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반을 잡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매일

그 불의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참 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도 수없이 권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중보적인 도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성을 엮으실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 부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의 모든 것이 다 녹아 내렸습니다. 마치 옹기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 같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 연기와 불이 옹기점 굴뚝에서 나오는 새까만 연기와 풀무 불같았습니다. 그 어떤 쇠불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인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주장했던 무신론 사상들이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졌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지구촌에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더욱 온전히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 덮음의 역사

10절 말씀에 “그름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입니다. 그름은 하나님을 호의하는 천사들입니다. 마치 성막의 지성소에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두 그룹이 마주보고 하나님을 호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뾰뾰한 구름으로 덮은 캄캄한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뾰뾰한 구름이 덮음과 함께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 역사입니다. 뇌성과 벼락으로 지존자의 음성을 알리시는 역사입니다. 물밀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은 단 한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질 수도 없고, 육적인 삶으로 함께 동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

리 자신이 온전한 거룩함은 이를 수 없으나 성결함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삼 일을 기다리게 하라”(출 19:10-11) 우리는 성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역을 위해 지경을 엄히 구분해야 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치 말찌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12) 비록 그들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삼일 간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성결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는 산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하도록 지경을 엄히 구분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등정하는 70장로들과 여호수아까지도 지경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면서 아래로 백성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상에 가까운 자리까지 동행했으나 산 정상에는 오르지 모세 혼자만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저마다 각인이 설 자리가 다 있으며 지경을 엄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뽀뽀한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산을 뒤 덮었습니다(with a thick cloud over the mountain) 왜 구름으로 덮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캄캄한 구름이 뒤덮고 번개가 내리치고, 뇌성 벼락이 칠 때 노래방이나 술집에 갈 생각이 남니까? 컴퓨터 오락이나 TV 연속극 볼 마음이 생깁니까? 자식 걱정, 집안 걱정이 생깁니까? 아마 불신자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심지어 절간의 중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현현시 이러한 자연현상을 동원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내어 품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무론하고 심지어 제국이라도 일시에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으심은 오로지 그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